추재옥이 이끄는 '도멘 유제니'…한국인 '손맛' 담긴 부르고뉴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7



❶ 도멘 유제니 클로 부조 그랑 크뤼 2023.
❷도멘 유제니 그랑 에세조 그랑 크뤼 2023
❸도멘 유제니 에세조 그랑 크뤼 2023.
❹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브륄레 2023.
❺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끌로 유제니 2023.



추재옥 와인메이커

포도밭에 가보면 어떤 와인이 나올지 보인다고 한다. 와인메이커든 재배관리자든 들인 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다. 좋은 와인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건강한 포도나무와 살아있는 토양이니 말이다.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음식도 사람의 정성과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이어지는 와인이야말로 만드는 이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도멘 유제니를 잘 모르겠거든 추재옥이라는 사람을 보면 된다. 자신은 '농사 짓는 사람'이란 말처럼 아직도 가지치기에 포도 솎는 작업까지 직접 한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유제니의 총책임자이자 와인메이커인 추재옥 이스테이트 매니저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포도밭에서 토양은 여자의 자궁에 비유할 정도로 중요해 유기농 농법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미생물을 보존토록 한다"며 "와인은 포도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순수하고 섬세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와이너리 총책임자. 여성 와인메이커. 부르고뉴 한국인. 어떤 조합으로도 쉽지 않았을 여정이다. 추 매니저는 한국인이다. 2008년 부르고뉴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보통 직장인이었다. 와인 수입사에서 일을 하다 좀 더 배워보자고 떠난 길이었다. 그때가 28살이었다.

문과 출신이 중학교 수준 화학책까지 붙들고 포도재배학과 양조학 학위를 따냈지만 고집있는 프랑스, 거기서도 더 콧대높은 부르고뉴에선 그저 '아시아 여자애'였다. 그 어렵다는 양조학 최고 과정인 디플로마까지 끝냈지만 써주는 와이너리는 없었다. 선택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와인메이커도 아닌 그냥 포도밭 노동자로 인턴십 당시 인연이 있어 간 곳이 바로 도멘 유제니다.

아르테미스 그룹은 1993년 보르도 샤또 라뚜르로 시작해 2006년 부르고뉴 도멘 유제니, 2011년 론 샤또 그리예 등을 인수한 곳이다.

추 매니저는 샤또 그리예에서 먼저 총책임자를 지내다 도멘 유제니로 자리를 옮겨 2년차를 맞았다. 도멘 유제니는 전설적인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날린 명가 '도멘 르네 엔젤'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곳이다.

추 매니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몸에 좋다는 성분으로 포도나무 자체가 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화학 물질은 유기농 재배에서 허가된 것도 가능한 한 적게 쓰려고 하며, 이랑 사이에 보리 등 피복작물(cover crop)도 직접 심었다"고 설명했다.

아쉽지만 추 매니저의 와인을 맛보려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 그가 만든 첫 빈티지가 2025년인데 지금 시장에 풀린 빈티지는 2023년이다. 그래도 양조 철학은 같다.

'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끌로 유제니'는 독점 소유 포도밭(모노폴)인 끌로 유제니에서 나온 빌라주 와인이다. 2019 빈티지는 균형감이 완벽하다는 평가만큼이나 바로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2023 빈티지는 폭염으로 고생했지만 줄기 사용 비중을 높였고, 화려함은 덜하지만 타닌과 구조감이 좋다.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브륄레'는 프리미에 크뤼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서늘한 기후로 예전에는 포도를 완전히 익히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온난화의 덕을 보고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쌉쌀하고 짭짤한 '돌 맛'이다.

사실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섬세하고 여리여리해서 음식이 꼭 필요하진 않다. 그래도 와인메이커가 한국인이니 음식 페어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쉽게는 고기를 살짝 구워 된장이나 쌈이 아닌 소금에 찍어 같이 마시거나 파전, 잡채를 비롯해 너무 맵지 않은 안동찜닭도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코미디에 진심 담아, 함께 웃는 무대 만들 것" 라라랜드·헝거게임 돌비 사운드로 본다

인터뷰

정 성 화 배우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공연
초연부터 지금까지 세번째 작업
살아있는 캐릭터 연기로 감정 전달
코미디의 본질 지키며 울림 줄 것



"연말 대작들이 대거 모여 있는 시기에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더 많은 관객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연습실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 정성화가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세 번째 시즌 개막을 앞두고 무대에 오르는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2022년 초연과 2025년 재연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주인공 다니엘 역을 맡은 그는 누적 관객 18만 명, 관객 평점 9.8점이라는 대기록을 이끈 주역이다. 이번 공연은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 등 초연·재연의 흥행 주역들이 다시 뭉치고 새 캐스팅이 더해져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아빠 다니엘이 아이들 곁에 머물기 위해 유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원작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제작진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논레플리카' 방식으로 제작됐다. 초연 때부터 캐릭터를 함께 구축해 온 정성화에게 이 작품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는 "초연 때부터 작업했기에 정이 많이 들었다"며 "(저 또한) 아빠라 그런지 다니엘의 마음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60세가 되어서도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이번 시즌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관객이 남편조차 속을 정도로 정교한 할머니 연기에 빠져들게 하는 '디테일'이다. 공연 초기 인물의 개성과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윤여정, 故 김수미 배우의 모습을 참고하는가 하면, 관객을 사로잡는 명장면인 '8초 퀵체인지'와 1막 마지막 록 넘버에서의 무대 위 헤어스타일 전환 등 고난도 기술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처럼 유쾌하고 숨 가쁜 변신 속에서도 정성화가 놓치지 않는 원칙은 바로 '코미디의 본질'이다. 1994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틴틴파이브 활동 등을 거친 그에게 코미디는 독보적인 무기이자 훈장이지만, 결코 단순한 웃음 기술에 기대지 않는다.

정성화는 "코미디 타이밍은 역설적이게도 진지함에서 나온다.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웃음도 정확하게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미디는 단순히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객이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야 코미디도 극적으로 전달됩니다. 공연 내내 웃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살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코미디 철학은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단순한 가족 코미디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의 박수를 들을 때 비로소 '하루를 잘 살았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배우 정성화. 그는 오늘도 관객에게 진심 어린 웃음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연습실로 향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가박스, 돌비시네마 라인업 공개

메가박스가 11월 돌비 시네마 상영작으로 '라라랜드', '헝거게임 50번째 추첨의 날', '헥스: 마녀왕국'을 선정했다. 로맨스부터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프리미엄 특별관에서 선보인다.

먼저 11일에는 개봉 10주년을 맞은 '라라랜드'가 재개봉한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한 작품으로, 돌비 시네마에서는 18일부터 상영한다. 배우 지망생 미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사랑과 꿈을 그린 영화로, 돌비 비전의 색감과 돌비 애트모스의 입체적인 사운드로 작품의 음악과 영상미를 전달한다.

18일에는 '헝거게임' 시리즈 신작 '헝거게임 50번째 추첨의 날'이 개봉한다. 주인공 헤이미치 애버내시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제50회 헝거게임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을 그린다. 25일에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헥스: 마녀왕국'이 관객을 만난다.

메가박스는 세 작품을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 등 총 14개 지점에서 상영한다. 관람객에게는 돌비 포스터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지점별 증정 정보는 메가박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GV, 애니메이션·공연 등 특별 콘텐츠 풍성

더 랍스터·원스 등 명작영화 재개봉

CGV가 11월 애니메이션과 명작 영화 재개봉작, 공연 실황 등 다양한 특별 콘텐츠를 선보인다.

애니메이션 라인업으로는 5일 '명탐정 코난: 30호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11일 '극장판 카드캡터 체리: 봉인된 카드', 14일 '극장판 마카엔로니: 기억탐험 대소동!'이 단독 개봉한다. 20일부터는 '원피스 필름 골드'를 재상영하며, 25일에는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를 4DX 포맷으로도 선보인다.

명작 영화 재개봉도 이어진다. 11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터', 18일 존 카니 감독의 음악영화 '원스'가 관객을 만난다.

공연 콘텐츠로는 11일 하이라이트의 데뷔 15주년 기념 공연 실황 '하이라이트: 라이츠 고 온, 어게인 인 시네마'를 재개봉하고, 18일 임영웅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단독 개봉한다. 22일 세븐틴 유닛 콘서트 생중계에 이어 29일에는 엔믹스의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을 SCREENX LIVE로 선보인다. KBO 한국시리즈 생중계도 전국 CGV에서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좌초 위기'…유조선 2척 방향 틀어 /사진 뉴시스

▲EU·미, 우크라 전후 재건 협의…젤렌스키 "추가 지원 준비"

▲푸틴, APEC 앞두고 중-러 변경도시간 철로 복선화 법안 서명

▲APEC서 미중러 첫 정상회담 열릴까…셈법 엇갈려 "의제 동상이몽"

▲中왕이, 인근 동남아 5개국에 안보·무역 등 협력 강조

▲日의료기업, 홋카이도 내 의료기기 드론 수송 상용화 추진